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회담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3시간 51분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과 달리 시종 밝은 표정이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 남북정상 오늘 '10·4 공동선언' 발표

### 어제 4시간 회담... 비핵화서 경험 확대까지 진술한 대화

盧대통령, 아리랑 공연 관람 ▶ 3·4·5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3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4일 오전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은 남북정상 합의사항을 늦어도 4일 낮 환송오찬 전까지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합의 사항을 선언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오후 회담에서 남북간 의견조율이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두 정상이 오전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집중 논

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2000년 전례에 비해 한반도 평화선언 형식의 '10·4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두 정상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노 대통령의 평양체류 일정 하루 연장 제안을 논의한 결과, 당초대로 노 대통령이 2박3일 평양일정을 소화하고 4일 오후 귀경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 안 해도 되겠다. 남측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본래대로 합시다"면서 "4일 낮 노 대통령을 환송하는 오찬을 배 풀겠다"고 말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2차 회담 모두 발언에서 "내일(4일) 오찬을 평양에서 여유 있게 하시고 오늘 일정들을 내일로 늦추는 것으로 해 모레 서울로 돌아가시

는 게 어떨까"고 전직 제안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1차 정상회담을 벌였다. 회담은 소수 배석자만이 참석한 단독회담 형식으로 열렸다. 남측의 경우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현 청와대 안보실장,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선선부 부장이 배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회담과는 달리 북측의 요구로 평양에 파견된 공동취재단 기자들의 취재 접근이 일체 불허돼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 금강산 관광지역 등 3대 경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 해주와 남포 등에 제2의 공단을 조성하거나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옥류관에서 남측 방북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오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숨김없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다"며 "분명하게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데 이어 인민문화공전에서 북측 인사들을 위한 답례 만찬을 베풀었다. 4일에는 김 위원장이 마련한 환송오찬에 참석한 뒤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귀경할 예정이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베이징올림픽 남북 단일팀 의견 접근

남북은 3일 베이징 올림픽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키로 의견 접근을 보였다고 정세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했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특히 북측에 "2008년 올림픽 때의 성화를 노 대통령이 이번엔 남북한 경로를 이용, 남측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고 평양을 경유해 베이징으로 가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북측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디자인비엔날레 내일 개막

오늘 전야제...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의 빛' 점등

45개국 2007점 전시

'빛 LIGHT'를 주제로 한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4일 프레스 오픈과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2005년 창설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세계 45개국 디자이너 927명과 103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일 개막,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는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날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4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과 전시장에서 AP, AFP 등 내외신 기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 오픈을 갖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구성과 행사 일정을 소개한다.

또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막을 기념하는 전야제 행사가 오후 7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독일의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 인고 마우러 등 초청인사,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야제는 세계디자인평화선언 상징조형물인 '평화의 빛' 점등식, 축하공연, '평화의 빛' 설계자인 인고 마우러의 작품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평화의 빛'은 개막식 행사 때 선포되는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비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높이 15.18m의 물기둥 형상의 기념물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 GWANGJU DESIGN BIENNALE 2007

**LIGHT**  
 2007.10.5~11.3  
 김대중컨벤션센터  
 www.designbiennale.org

**본행사**

- 10월 5일 (토) 개막식
- 10월 6일 (일) 전야제
- 10월 7일 (월) 개막식
- 10월 8일 (화) 개막식
- 10월 9일 (수) 개막식
- 10월 10일 (목) 개막식
- 10월 11일 (금) 개막식
- 10월 12일 (토) 개막식
- 10월 13일 (일) 개막식

**특별행사**

- 10월 5일 (토) 개막식
- 10월 6일 (일) 전야제
- 10월 7일 (월) 개막식
- 10월 8일 (화) 개막식
- 10월 9일 (수) 개막식
- 10월 10일 (목) 개막식
- 10월 11일 (금) 개막식
- 10월 12일 (토) 개막식
- 10월 13일 (일) 개막식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광주광역시